

2) 유 물

청동기시대의 유물은 크게 석기류·토기류·청동기류·장신구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시대에는 일상생활용구로 석기와 토기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일부 유력층만이 청동기와 옥 등의 장신구를 소유하였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들이 생활하였던 집터에서는 청동기와 장신구들이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일상용구인 석기와 토기만이 발견되었다. 청동기시대였지만 청동기는 주로 일부에서만 신분의 상징물로 소유하였고 실제생활에서는 석기나 토기, 나무로 만든 목기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 석기류 및 석제·토제품

석기류에는 간돌검·간화살촉·석창 등 무기류와 홈자귀·턱자귀·조갯날도끼·바퀴날도끼 등 도끼류 그리고 돌끌·대팻날 등 돌끌류 등과 이외에 돌칼·숫돌·갈판·가락바퀴·그물추 등 다종다양하다. 이 유물들 중 간돌검·간화살촉 등은 부장용으로도 쓰이는 것이며, 나머지들은 모두 실생활 용도에 따라 제작된 것들로 집터에서 발견되고 있다.

① 간돌검(석검)

간돌검은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한반도의 전 지역과 일본 구주 및 연해주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간돌검의 형태는 대체로 자루의 형태에 따라 유경식과 유병식으로 분류되고, 다시 자루에 단이 있느냐에 따라 일단병식과 이단병식으로 구분된다. 종래에는 간돌검이 청동검을 모방하여 발생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 조형을 한국식동검·중국식동검·오르도스동검 등으로 잡고 그 변천과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청동검을 모방하였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간돌검의 연대가 오히려 청동검의 연대보다도 올라가고 있고, 오르도스검의 경우에는 한반도에서 거의 발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간돌검의 기능에 대해서도 종래 비실용품으로 보고 있는 데 비해 실용성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즉, 간돌검이 집터에서 출토되는 예가 많고, 검신의 인부에 마연의 흔적이 있어 재가공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간돌검은 결국 검보다도 칼의 역할을 하였고, 출현시기는 민무늬토기의 초기로 짐작되며 소멸은 철검이 등장할 때로 보고 있다.

전남지역에서 발견된 간돌검도 유병식과 유경식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유병식 : 검신과 손잡이인 병부가 있는 형식

- ┌ 유병 I 식(이단병식)
 - ┌ Ia식(유절병식): 병부에 홈이 파여져 둘러진 형식
 - └ Ib식(유구병식): 병부에 돌대가 있거나 홈 주위 돌대가 있는 형식
- └ 유병 II 식(일단병식)
 - ┌ IIa식(유단식): 검신에서 병부가 단을 이루어 연결되고, 검코와 병부가 뚜렷이 구
 - └ IIb식(유절식): 검신과 병부가 연결되는 곳에 돌대가 둘러지고, 검코와 병부가 뚜렷이 구분되게 T자형으로 이어진 형식

유경식 : 검신 끝에 달려 있는 경부에 자루를 따로 만들어 부착한 형식

- └ 유경 I 식(장경식) : 경부가 긴 형식
 - └ Ia 식(세경식) : 검신에 비해 경부가 1/3 정도로 좁고 경부 끝에 홈이 있는 형식으
로 단경이지만, 1/3 정도의 세경한 경부는 이 형식에 포함할 수 있
다.
 - └ Ib 식(광경식) : 검신에 비해 경부가 2/3 이상 넓은 형식이며, 경부에는 길게 홈이
파인 것이 많다.
- └ 유경 II 식(단경식) : 경부가 짧은 형식
 - └ IIa 식(단경유구식) : 넓은 경부 양쪽 끝에 홈이 파여진 형식
 - └ IIb 식(단경유공식) : 넓은 경부에 구멍이 있는 형식
 - └ IIc 식 : 넓고 짧은 경부만 있는 형식

무경식 : 병부와 자루가 없이 검신만 있는 형식으로 자루를 따로 만들어 부착하여야 한다.

- └ Ia 식(무경유구식) : 경부가 없이 검신 끝에 홈이 파여진 형식
- └ Ib 식(무경유공식) : 검신 끝에 구멍이 있는 형식
- └ Ic 식 : 검신만 있는 형식

이 간돌검의 형식 중에서 유경세경식은 황해도지역에서 팽이형토기와 함께 발견되는 형식으
로 담양 제월리 유적에서 한 점이 발견되었다. 형태가 다른 유경단경유구식은 화순 창랑리,
송광면 우산리, 보성 죽산리 등 보성강 유역 고인돌의 부장품으로 다량 발견되는 보성강 유
역의 특징적인 간돌검이다. 유병식은 주로 일단병식으로 고인돌의 부장품으로 많이 발견되
었는데 피홈(혈구)이 있으며, 이단병식은 극히 드물게 나타난다.

② 간화살촉(석촉)

간화살촉은 신석기시대에 이미 사용되었으나 청동기시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다양해지고 제
작도 정교해진다. 형태는 크게 유경식과 무경식으로 분류되고 유경식 중에서 축신부와 경부
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중간식(유엽형)으로 부른다. 간화살촉의 기능은 수렵 또는 무
기로 생각되는데, 한 집터에서 다양한 형태의 간화살촉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형태에 따
른 기능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덤에서 발견된 간화살촉은 초기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후기에는 집터에서와 다
른 형태가 출토되고 있어 이것은 부장용으로 보인다. 또한 무경식 중에서 삼각형은 청동기
의 사용과 관련이 깊다. 전남지역에서 발견된 간화살촉에는 유경식이 대부분인데, 영암 장천
리 유적이나 송광면 대곡리 유적에서 발견되는 간화살촉은 실용성이 있는 소형의 것인 데
비해, 고인돌에서 발견되는 간화살촉은 축신이 긴 부장용도 많이 발견되었다. 이에 비하여
무경식이나 중간식 간화살촉은 그 수가 적다.

③ 돌 칼

반달돌칼은 중국 화북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곡식의 이삭을 자르는 농경석기이며, 반달 모
양이고, 끈을 묶기 위한 두 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 형태는 장방형·빗형·단주형·장주형

및 삼각형 등이 있다. 중국의 것은 조갯날인 데 비해 우리 것은 한 면만 갈아서 세운 외날이다. 삼각형은 충청도·전라도 해안지역에서 유행하였던 것으로, 만드는 힘을 절감하기 위하여 둥근 날부분을 두 개의 직선으로 만들고 날은 각각 다른 쪽에서 세운 엇날이다. 전남 지역에서 발견된 반달돌칼 중에는 삼각형돌칼이 가장 많은데 영암 월송리, 나주 영평리, 강진 파산리 유적 등과 보성강 유역의 지식묘에서 발견되고 있다.

④ 도끼류(석부류)

도끼는 조갯날도끼(양인석부)·홈자귀(유구석부)·턱자귀(유단석부)·달도끼(환상석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돌도끼는 날이 양쪽에서 갈아진 조갯날에 도끼 몸의 단면이 장방형·타원형 등과 납작한 것도 있다. 도끼는 신석기시대 이래로 가장 많이 쓰였던 도구로 청동기시대에도 다양하고 많은 수가 유적에서 발견되고 있다. 도끼는 땅을 파거나 나무를 벨 때 쓰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도끼 중에서는 특수한 형태의 도끼가 있는데 달도끼, 별도끼(성형석부·다두석부) 등이다. 이들 돌도끼는 특수한 용도의 돌도끼로 무기의 기능을 가진 곤봉두로 추정되고, 별도끼만은 실용성이 없어 장식적인 의기로 보고 있다.

도끼로 분류되나 종류가 다른 것으로 자귀류가 있다. 자귀류에는 턱자귀·홈자귀 등이 있다. 턱자귀는 팽이형도끼가 분포하는 평안남도·황해도 지역에서 주로 출토되는데 이것이 한강이남에서는 도끼의 복부에 홈이 파인 소위 홈자귀로 변한다. 홈자귀는 중국·동남아시아·태평양 등 그 분포지역이 매우 넓다. 홈자귀의 분포는 대체로 붉은간토기의 분포와 일치된다. 자귀류의 기능은 나무를 다듬는 목공구로 보고 있다. 전남지역에서 발견된 도끼류도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특징적인 것으로 턱자귀가 영암 장천리, 강진 파산리 유적과 보성강 유역이나 남해안지역의 지식묘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장천리 유적 출토품은 윗부분에 작은 구멍이 있어 독특하며, 홈자귀 중에는 길이가 유난히 긴 독특한 형태가 신안군 안좌면 방월리나 장흥 등에서 발견되었다.

⑤ 돌끌류(석착류)

돌끌류는 돌도끼와는 기능에 차이가 있는데, 돌도끼가 굴지구나 벌목용 등 도끼의 기능을 가졌다면 돌끌은 목공구로 사용되었다. 돌끌은 한쪽에서 날을 세운 단인이고 평면과 단면이 장방형으로 두께가 얇은 것이 특징이다.

돌끌류는 끌과 대팻날로 구분되는데 폭이 좁은 세장형은 끌로, 폭이 넓은 장방형은 대팻날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돌끌류는 집터나 고인돌에서 모두 출토되고 있다. 이는 생활용구로서 중요한 쓰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집터나 유물산포지인 영암 장천리에서 9점, 강진 파산리에서 2점 이외에 광주 송암동이나 담양 제월리, 송광면 대곡리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영산강 유역 고인돌 출토품에는 1점도 없고, 남해안이나 보성강 유역 고인돌에서 발견되고 있다.

⑥ 솥돌(지석)

솥돌은 석기를 제작하거나 사용하던 무딘 석기를 재가공하는 데 이용한다. 솥돌들은 집터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지만 고인돌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이러한 출토로 보아 석기는 직접 집안에서 제작하였을 것이며, 고인돌 축조 때에도 석기의 사용빈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집터에서는 영암 장천리, 광주시 우치동·송암동·운암동, 송광면 대곡리와 담양 제월리 등 유물산포지가 있으며 고인돌에서는 영암 청용리, 광양 원월리, 여천시 월내동 등이 있다.

⑦ 갈판·갈돌

갈판은 청동기시대의 농경생활을 시사해주는 유물이며 곡식을 빻거나 가는 데 사용한 것이다. 대형의 장방형 갈판과 단면이 렌즈형인 갈돌형이 있다.

대형의 장방형 갈판 중 집터에서 출토된 것은 광주 송암동·운암동, 송광면 대곡리 등의 것이 있다. 보성 죽산리 하죽 '다'군 1호 고인돌 솥돌 옆 묘실 안쪽에 엮어진 상태로 발견된 것은 우리나라 고인돌 출토의 유일한 예이다. 집터에서 출토된 갈돌형 갈판은 영암 장천리의 것이 있다. 고인돌에서 출토되는 것은 석실 주위에서 발견되는 파편들뿐이며, 지금까지 남해안지역인 강진 영복리에서 2점, 보성강 유역인 주암댐 수몰지역 고인돌 주위에서 6점이 발견되었다. 이를 갈판으로 보기보다는 갈돌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이러한 유물들은 그물추 등과 함께 당시 생활용구들로 생각되는데 고인돌 축조 때 생활을 추정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 하겠다.

⑧ 가락바퀴(방추차)

가락바퀴는 실을 뽑아내는 데 쓰인 것으로 그당시 의생활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가락바퀴는 석제와 토제가 있는데 토제는 강진 영복리와 송광면 신평리 고인돌에서 각 1점씩, 석제는 나주 대초담, 송광면 월산리 사비, 보성 죽산리 하죽 고인돌에서 각 1점씩 모두 5점이 출토되었다. 송광면 월산리 사비를 제외하고 실제 사용했기 때문인지 반파품이거나 미완성품들로, 고인돌 주위에서 출토되고 있다. 그러나 집터 출토품들은 거의 완형들이어서 대조를 보인다. 영암 장천리, 나주 영평리, 강진 파산리, 송광면 대곡리 등에서 발견된 바 있다.

⑨ 그물추

그물추는 고기를 잡을 때 쓰던 것으로 원통형과 원반형, 도구형 등인데 대부분 토제이다. 석제는 냇물 양쪽을 깬 것이 있는데 이는 보성 죽산리에서 출토된 바 있으나 이 형태는 신석기시대의 전통을 가진 것이다. 강진 영복리에서는 원통형만 10점, 보성 죽산리에서는 원반형 6점이 출토되었다. 송광면 우산리 내우에서는 석실 내의 부장품으로 도구형이 1점, 화순 장학리에서는 석실 내에 부장한 채문토기 안에 원반형 1점이 발견되었다. 강진 영복리와 보성 죽산리 하죽의 고인돌 주위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고인들의 축조 당시 고기잡이로 식생활에 일조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화순 장학리는 부장품으로 피장자와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고, 송광면 우산리 내우는 목걸이 대용품으로 사용한 예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유물산포지인 광주 우치동에서 4점이 출토되었다.

⑩ 칼자루끝장식(劍把頭飾)

칼자루끝장식은 청동검의 끝자루 장식품으로, 곡성 공복리와 영암 장천리에서 토제와 석제가 각 1점씩 발견되었다. 영암 장천리에서는 한국식동검편과 함께 발견되어 고인돌과 청동기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보성 봉릉리에서는 T자형 칼자루끝장식과 함께 유경식간돌검, 청동투검창편이 공반되었으며 곡성 목사동 공복리와 광산구 신창동 웅관묘지에서 십자형이 출토된 바 있다.

이상에서 본 석기류 이외에도 환석, 오목석(눈돌), 석제형 제품 등이 있다.

